

이 책은 이른바 ‘들어온’ 원고였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이 운영하는 분도출판사에서 ‘들어온 원고’가 살아남을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 신학과 종교 관련 서적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속으로 는 사실, 내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했다. ‘중국문명이 처한 현금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씌어진 이 원고가 과연 분도출판사에 어울리는가. 이런 종류의 책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국내 굴지의 출판사들이 준비하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문명론을 전개한 지적 거장들이 간과했거나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몇몇 중요한 사실에 착안 하여 이를 근거로 나름대로의 논의를 전개했다고 믿는 저자의 자신감에 자꾸 마음이 끌렸다. 게다가 그 지적 거장들이란 바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가 아닌가. 그들의 헛점을 김필년이 메우겠다 말인가!

당시 편집장이던 정한교 선생께 원고를 읽어 보십사 했다. 선생은 단숨에 읽었고, 무릎을 치셨다. 결론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왜 동의하지 말아

야 하는지를 칼날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를 때까지, 입론을 장악해 가는 저자의 기운이 탄복할 만큼 성했기 때문에 읽기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리고, 채택되었다. 2000년 겨울, 셀 수 없는 통화가 안동과 왜관을 넘나들고 이날의 어둠이 수도원을 이불처럼 덮었다.

이 책은 중국문명의 어제와 오늘을 서구문명의 발전과정과 관련지어 보편사적 시각에서 해명하는 비교문명론이며 그 소재는 상(商)·주(周)로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역사다. 그러나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서술 형식면에서 기존의 여러 중국 통사들과 확연한 차별성을 지닌다. 시대 구분이 다르고 설명의 틀이 다르다. 저자는 동서를 막론하고 ‘경쟁’ 이아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며, 근현대문명의 가장 큰 특색도 역시 경쟁의 세계화, 개방적 시장경제의 보편화에서 찾고 있다. 저자에게 ‘경쟁’ 이란 문명비교론적 역사서술의 바탕이 되는 시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사건·사상·규범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관계 속에

서 행하는 기능이다. 중국 전통문명이 근대 서구문명에 비해 앞섰던가, 유교가 기독교에 비해 더 근대적이었던가, 또는 서구의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 사회발전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신유학에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자는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기존의 입론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출간 이후, 의외로 많은 지면에 소개가 되었다. 서울 시립대 이동하 교수는 <교수신문>에 정성껏 서평도 써 주었다. 그런데 잠잠했다. 2001년, 이 책이 출간될 무렵 분도출판사는 <신약성서 주해>라는 대작을 내놓았다. 온 교회 안팎의 스포트라이트가 <주해>에 쏟아졌다. <시련과 적응>은 시련에 적응하지 못했다. 끝까지 이 책의 탁월함을 확신하던 정한교 선생은 지난 2월 12일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4]

## 시련에 적응하지 못했던 ‘시련과 적응’

김영철 | 분도출판사 편집장

- 분도출판사 <시련과 적응: 보편사적 시각에서 이해한 중국문명>



<시련과 적응: 보편사적 시각에서 이해한 중국문명>

김필년 지음 | 분도출판사 | 424쪽 | 값 12,000원



《양명철학》 진래來 지음 | 전병욱 옮김 | 예문서원 | 752쪽 | 값 30,000원

## ‘회유 종용 협박(?)’의 산고 겪은 ‘유무지경有無之境’

● 예문서원 《양명철학》

김병훈 | 예문서원 편집장

예문서원이 출범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펴낸 책들을 쭉 살펴보자니 유학에 편중된 감이 있고, 유학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 쪽으로 치우쳐 있다. 만일 예문서원이 막 꼬물거릴 그 무렵에 들어왔던 한 편의 원고가 순탄하게 세상에 나왔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양명철학》. 이 책 속의 왕수인은 유·불·도라는 동양철학의 대표적인 영역을 한몸에 담고 있는 사람인 듯도 하다.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그 모습은 분명 선禪의 그것을 닮았고, 유·무의 세계와 무·無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 속에는 도가의 자취도 엿보인다. 또한 그는 한순간도 유자儒者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투철한 유학자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주자학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세움으로써 국내의 유학자들에게서 철저하게 배척되어 왔다 는 사실이다.

이 책의 원고는 이미 1994년경 ‘유무지경有無之境’이라는 원제 그대로 우리에게 입수되어 있었다. 저자 ‘진래來’가 지

닌 학계에서의 지명도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였지만, 무엇보다 주자학에의 고착이라는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책의 출간은 절실했다. 하지만 그대로 낼 수는 없었다. 원고는 대학원의 스터디그룹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강독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10여 명의 역자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 명이 전면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섰다. 《양명철학》의 단독 번역자로 확정된 바로 그 사람이다. 수차례 원고가 돌고, 우리 컴퓨터 속의 ‘유무지경’이란 폴더는 거듭 덧씌워져 갔다.

그래도 출판은 요원했다. 어떤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고, 어떤 사람은 학계를 떠나고, 조정자가 떠말아야 할 분량들이 자꾸만 늘어났다. 결국 조정자가 단독번역자가 되어 전체분량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원저자에 대한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마냥 끌고 있을 수만도 없어, 독촉 끝에 우리는 2002년 6월 역자로부터 최종원고를 받았다.

편집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교정

을 본답시고 일을 벌여 놓았더니 역자는 8월 말에 딱하니 중국유학을 떠나고 말았다.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일은 그럭저럭 진행되었지만, 막바지에 가서 또 진통이 따랐다. 몇몇 미묘한 단어들에서 우리와 역자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로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았지만 합의점은 너무 멀리 있었다. 회유와 종용과 협박 끝에(?) 결국 역자의 양보를 얻어 2003년 5월 《양명철학》이 출간되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했다. 편집자에게는 책이 그렇다. 간혹 쥐어뜯어 내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정말 남의 손가락 같은 책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책 《양명철학》만큼은 진짜 아프다. 예문서원의 역사와 호흡을 같이해 온 책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책에 대한 역자의 애정에는 감히 비견하지 못한다. 이 책에 들인 10년 동안의 그 공을 잘 알기에. **후문**

'첫'이라는 관형사가 주는 의미는 특별함과 설렘을 동반한다. 이 책이 그렇다. 컴버랜드하우스 출판사가 한국에 처음 저작권을 수출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제 막 시작하여 의욕적으로 일하는 에이전시가 중계하는 첫 책이기도 하다.

원서를 처음 접했을 때 컨셉과 문장 하나하나, 전달하려는 따뜻한 메시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원서의 사진 상태가 좋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포토에세이의 특징상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외국 가정을 모델로 했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딸이나 아들에게 정말 '아빠'가 필요한 이유를 이 책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잘 표현한 책은 없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는 아빠와 딸이 함께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여주며, 가슴 푸근한 관계를 느끼게 해준다. 이 책에서처럼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빠는 나의 첫사랑이고 훌쩍 커버린 지금도 변하지 않는 내 버팀목이며 그리움이다. 처음 읽을 때는 단순히 딸이

아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아빠가 딸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을, 세 번째 읽을 때는 딸아이에게 변화는 좋지만 결코 아빠보다 더 어른이 되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네 번째 읽을 때는 딸아이와의 추억거리를 끌어안고 놓지 못하고 있는 아빠의 속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앞마당에서 커브 볼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던 아버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자상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첫 영웅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몰이해와 지나친 통제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반항적인 행동들은 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린다.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된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도전과 부담감을 자신의 아이로부

터 체험하게 된다. 한때 아버지와 벌었던 논쟁과 타협을 내 아이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은 모든 아버지들이 딸에게 사랑을 베풀고, 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마음으로 주고받았던 가슴 훈훈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 아들이 남자로 자라는 동안 아버지로써 맡은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이며, 아버지라는 역할은 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엄청난 도전이며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책장을 한 장씩 사락사락 넘길 때마다 묻어나는 따뜻한 정과 푸근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여 어느새 내 옆에 성큼 다가와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사랑이 가득한 멋진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천**

김은정 | 나무생각 편집부

## 딸의 첫 사랑, 아들의 첫 영웅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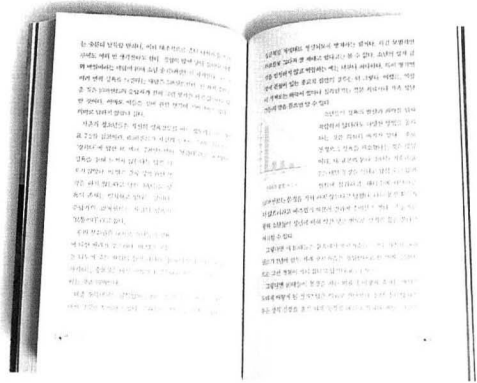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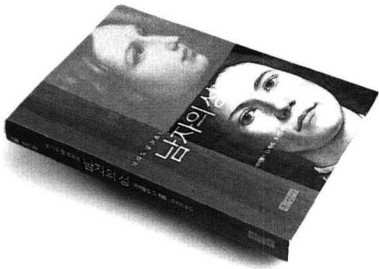
● 나무생각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그레고리 E. 랭글 | 재닛 랭포드 모란 사진 | 이혜경 옮김 | 나무생각

| 각권 128쪽 | 각권 값 7,900원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아처볼드 D. 하트 지음 | 유선명 옮김 | 홍성사 | 304쪽 | 값 9,000원

## 남자의 성,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온다!

● 홍성사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유명호 | 홍성사 편집장

“남자의 성욕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거나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머리말 중

히포의 어거스틴은 오랜 세월 성에 탐닉한 인물이었다. 십대 시절에 이미 동거를 시작하여 사생아까지 낳았고, 약혼한 뒤에도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했을 정도다. 그가 남긴 《어거스틴 참회록》에는 ‘사악한 쾌락의 유혹’에 빠져 방탕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오리로 가득하다. 오늘날 성뿐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그도 젊은날을 성적으로 분탕질했을 정도로, 남자에게 성은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마와 같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 전문가인 아처볼드 D. 하트 박사가 쓴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은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며 명마로 부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담고 있는 책이다. 특히 종교적 배경에서 성장했거나 윤리의식을 지닌 평범한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종교와 도덕심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25년간의 임상경험과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자위, 혼외정사, 혼전성관계, 음란물(매체),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성에 관한 갖가지 주제를 오가며, 이 시대 ‘선량한’ 남성들의 감춰진 성의식과 욕망, 부당한 죄책감 등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그러면서도 결코 어거스틴의 ‘과거’를 따르지 말라는 식의 설교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욕과 그 감추고 싶은 욕망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조용히 등 두드려준다. 문제는 엄숙주의와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그릇된 죄책감과 왜곡된 성의식이며, 그 그릇된 죄책감이 거의 대부분 선량한 남성의 성생활에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성적적인 남성으로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도록 돕는다.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 책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을 미국 사회의 평범한 가장, 거기다 대부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직장인으로 삼았으며, 동성에 문제는 아예 체쳐두고 있는 게 그

렇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작(勞作)으로서 이 책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언저리 얘기 하나. 이 책을 편집할 당시 편집자는 미혼(여성)이었는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책의 내용을 수시로 들려주었고, 편집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신혼여행 기간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로 보아, 이 책은 남성뿐 아니라 ‘달이 이울면 늑대로 변하는 남자의 야수성’을 이해하려는 여성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다.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은 한국 기독교출판협회로부터 2003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 사회의 공인을 받은 바 있다. 성에 관한 한, 광장의 문화는 없고 밀실의 문화만 융성한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의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이 책은 탁 트인 광장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유명호**